

2단계 기준 진입... "완화 가능성은 희박"

중앙방역대책본부 11~12일쯤 재조정 여부 판단
 "설연휴 5인 사적 모임 금지 풀리지 않을 것"

지난달 31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주 연장을 결정한 정부가 향후 1주일 간 확진자 추이를 지켜보며 거리두기 단계 재조정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지만, 완화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사람 이동이 잦은 설 연휴를 앞두고 갑자기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면 코로나19가 지역사회 전체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일주일간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41명으로, 일 평균 405명을 기록중이다.

이 기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기

준이 되는 국내 발생 확진자(해외 유입 제외)는 2635명으로, 일 평균 376명이다. 확진자 수만 놓고 보면 현행 거리두기 2.5단계(수도권)를 2단계로 하향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다. 거리두기 2단계 조건 중 확진자 기준은 주 평균 300명 초과 400명 미만이다.

그러나 제주도 방역당국은 주 초반 300명대를 보이던 확진자수가 지난 이틀 사이 400명대로 늘어났고, 선교회발 집단 감염과 수도권 중심으로 대규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오는 11~12일쯤 거리두기 단계 재조정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겠지만 완화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만약 조정한다해도 자영업자의 심각한 피해를 고려해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것까지만 고려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날때까지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와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풀면 사람의 이동이 잦은 설 연휴를 기점으로 코로나19가 지역 사회로 크게 확산될 수 있다"며 "설 연휴 전에 완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완화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가정마다 혼란을 겪고 있다. 제주에 고향을 둔 김모(43·경기도)씨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가 확정되는 이번

주말 정부의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며 "만약 완화되면 그때가서 비행기표를 구할 생각이지만, 비행기 표가 있을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설 연휴 때 가족끼리 5인 이상 모이는 것에 대해선 신고 의무로 단속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한 단속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 시설 중심으로 단속반이 돌아다니며 적발하는 방식"이라며 "가족 끼리 집안 내 5인 이상 모임까지 공무원이 급습하는 방식으로 적발하지는 않지만, 다만 이웃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출동해 단속하니, 도민 스스로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군사작전 방블케하는 백신 공급

3일 문 대통령 참석 모의훈련... 군·경찰 총동원
 백신 제주 반입시 콜드체인 유지 안전운송 관건

제주도가 2월부터 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인 가운데 제주지역에 백신이 안전하게 운송돼 차질없는 접종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수송, 유통, 보관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수송 모의훈련이 실시됐다.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국내 생산되며, 화이자, 모더나, 안센 백신은 해외 제조사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영하 70~20°C에서 보관해야 하는 만큼 냉동물류창고, 냉동차량, 초저온냉동고 등을 통해 운송·보관된다. 안센 백신은 초저온과 저온에서도 백신 보관이 가능해 백신 유통은 냉동으로, 백신 보관은 냉장으로 이뤄진다.

인천공항의 경우 초저온 백신인

화이자는 콜드체인(냉장유통) 유지를 위해 공항 진입에서부터 전용주 기장 배정, 그리고 작업 준비까지 우선권을 제공하고, 약기상이나 기타 우발상황을 대비해 공항 내에서 일시 보관할 것을 감안한 비상 계획도 수립했다.

군·경찰은 백신이 안전하게 접종센터로 이송될 수 있도록 테러나 도주 등과 같은 돌발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천공항을 통해 백신이 국내에 들어오면 물류센터로 이송되고, 각 지역으로 보내진다. 백신이 공항에서 나온 후 유통과정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협력사들과 구축한 유통체계를 따라 예방접종센터와 의료기관으로 배송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는 빠른 이송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해 이송될 가능성이 높다. 타 지역에 비해 원거리 수송이 이뤄지는 만큼 인천공항과 같은 안전한 백신 수송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설연휴 제주방문객 3일 전 진단검사를"

도, 제주형특별방역대책 발표

제주도가 관광·귀성객들에 대해 입도 3일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력 권고하는 등 지난해 추석보다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4일 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를 설 연휴 제주형 특별방역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원지사는 "설 연휴 제주 여행과 가족 모임을 잠시 미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며 "입도객이 제주에 머무르는 동안 주요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설 연휴 기간 ▷이동 자제 권고 및 입도객 대상 방역 강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28개 업종)에 대한 소관



봄맞이 나온 관광객들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인 4일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유채꽃밭을 찾은 관광객들이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부서별 집중 방역 추진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모든 입도객들에게 입도 전 3일 이내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강력히 권고된다. 제주도는 입도 전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귀성객과 관광객에게는 도내 주요 공

영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을 제공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코로나19 미검사가자 입도 후 확진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방역

수칙 미준수 등 본인 귀책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강경 대응한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입도객 중 발열 등 코로나19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자부담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강다혜기자

카지노업 건전성·사회적 책임 강화

도, 제2차 카지노업 5개년 종합계획 연구용역

제주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도내 카지노업계의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 발굴 등 카지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카지노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2차 카지노업 5개년 종합계획(2022년~2026년)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카지노들은 지난 2019년 기준 제주관광진흥기금 625억원 중 475억원(70%)을 납부하는 등 제주관광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지원군이다.

제주도는 카지노산업이 사행산업이라는 사회적 인식 탓에 제도적 불이익을 겪어 왔다고 진단, 카지노 이미지 개선사업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도는 카지노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카지노 업계와 도민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는 카지노 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내 카지노 기구·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전문화를 위해 '제2차 카지노업 5개년 종합계획(2022년~2026년)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김재용 도 관광국장장은 "그동안 내국인이 출입하지 못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임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민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 카지노 관리·감독 강화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 프로그램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필수선택입니다"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에 대한 경제단체 입장문

우리 제주지역 경제단체는 제2공항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으로 결론이 난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사업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며, 제2공항 건설에 적극 찬성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관광·건설업계뿐 아니라 자영업, 중소기업 등 경제의 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경제 성장률은 전국 최하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런 제주에 제2공항 건설로 국비 4조 7천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면 분명 심폐소생이 될 것입니다. 제주경제권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은 5년 이상 아픔을 겪고 있는 제2공항 예정지 마을 주민들입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할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생활대책 마련이 늦어집니다.

관계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제2공항 건설의 정상적인 추진과 함께 갈등해소 대책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세대뿐 아니라 후세까지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대안이 없는 필수선택입니다. 도민들의 오랜 여망이 모아져 정부가 결정한 제2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모두의 지혜가 절실 합니다.

도민들께서는 현명한 판단,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시리라 믿으며, 앞으로 있을 여론조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21. 2. .

제주지역 경제단체협의회

제주상공회의소
 구좌농공단지협의회
 대한주목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
 제주주마
 제주특별자치도상공인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중소기업중앙회제주지역본부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회

대한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
 대한건설기계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제주지역본부
 제주바이오기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토평공업단지협의회
 한국장예경제인협회제주지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대한건축사협회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제주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제주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수출협회
 제주특별자치도택시운송사업조합
 한국골프경영협회제주지역협의회
 한국전기공사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

제주경영자총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
 제주어류양식수협
 제주특별자치도위생단체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제주지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제주지회
 대한속박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회
 제주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제주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제주화장품기업협회
 한국무역협회제주지부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
 제주디자인기업협회
 제주특별자치도렌트카조합
 (사)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융합제주연합회
 한국소방시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